

『동의수세보원』 十棗湯과 관련된 澼澼汗出에 대한 고찰

김태영¹ · 박성식^{2*}¹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전문수련의, ²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수

Abstract

A Study on the Jeubjeubhanchul(澼澼汗出) Related to Sibjo-tang in Donguisusebowon

Tae-Yeong Kim · Seong-Sik Par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ntention expressed as Jeubjeubhanchul(澼澼汗出) unlike the aspect of perspiration in 『Sanghanlun(傷寒論)』 and 『Donguibogam(東醫寶鑑)』.

Methods

We examined Sibjo-tang(十棗湯) and the aspect of perspiration focusing on the Chip(熨) and Jeub(澼) in 『Sanghanlun(傷寒論)』, 『Donguibogam(東醫寶鑑)』, and 『Dong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Moreover, we examined the connection between the quoted purpose of Sibjo-tang and the aspect of perspiration.

Results and Conclusion

1. When Leejema quoted Sibjo-tang to explain the Chestbind disease(結胸) of the Soyang pattern, he used Jeubjeubhanchul(澼澼汗出) instead of Chipchiphanchul(熨熨汗出).
2. About the aspect of perspiration in 『Sanghanlun』 and 『Donguibogam』, the Chip(熨) is used in a situation when the disease progressed from Pyo(表) to Li(裏) and Taeyang-byeong(太陽病) to Yangmyung-byeong(陽明病), and it is expression of physiological perspiration. The Jeub(澼) is used in a situation related to interior(內), Li(裏), and Yangmyung-byeong.
3. Leejema understood Sibjo-tang in relation to the Chestbind disease of the Soyang pattern caused by aggravation of Liyeol(裏熱). Therefore, Leejema used the Jeub(澼) related to interior, Li and Yangmyung-byeong, and it is expression of perspiration caused by aggravation of Liyeol in the Soyang pattern.
4. At first time, Leejema mentioned perspiration and short of breath(短氣) in the symptoms of Sibjo-tang, but he mentioned dry vomiting(乾嘔) and short of breath in 『Sinchukbon(辛丑本)』. Thus, his perspective of perspiration related to Sibjo-tang was appeared in 『Gabobon(甲午本)』, and he paid attention to perspiration as a major symptom of the Chestbind disease in the early. After clinical experience was built up, It was not that important as the past.

Key Words : Jeubjeubhanchul, Perspiration, Sibjo-tang, Donguisusebowon

I. 緒論

澑澑汗出은 땀이 흐르는 양상을 표현한 것으로 하나의 글자를 중첩 사용하는 중국어 체계의 重言에 해당한다. 이처럼 의서에서 重言의 형식으로 땀을 표현한 것은 皦皦汗出, 漑漑汗出 등이 있다. 한출 양상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류 등¹⁾의 『黃帝內經』에 나타난 발한 양상을 한출 부위와 한출 모양에 대한 것으로 나는 연구가 있고, 해외 연구로는 皦, 澑 등의 글자의 분화 과정, 말의 소리에 대해 고찰한 연구²⁾가 있으며, 『傷寒論』에 나타난 한출 모양에 대한 주석가의 견해를 고찰한 연구³⁾가 있다.)

십조탕은 『傷寒論』에서 처음 나타나며 원화, 감수, 대극, 대조로 이루어진 처방이다. 장중경은 “태양 증풍에 하리와 구역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표증이 풀린 후에 공하법을 쓸 수 있는데, 땀이 나며 일정한 시간마다 발작하고, 두통과 심하부가 그득하고 단단하며 옆구리가 당기고 아프며, 헛구역질을 하고 숨이 짧으며 비록 땀을 흘리나 오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표증이 풀리고 리가 조화롭지 않은 것이니 십조탕으로 치료해야 한다.”²⁾라고 하였다. 장중경은 태양병편에서 십조탕을 다루었으나 『東醫寶鑑』에서는 소양병으로 분류하여 협통을 중심으로 언급하였다. 십조탕과 관련된 문헌 연구로 이 등⁴⁾의 『東醫寶鑑』 소양병에 대한 고찰을 통해 『東醫寶鑑』, 『傷寒論』에서 십조탕 분류의 차이에 대해 언급한 연구가 있고, 임상 연구로 윤 등⁵⁾의 혈당 및 신기능 부전에 대한 십조탕의 효과를 고찰한 연구와 오 등⁶⁾의 박동 관류 심방모형에서 심방 이노 호르몬의 분비에 대한 십조탕의 효과를 고찰한 연구가 있다.

이제마는 십조탕을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에서 소양인 결흉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하였으며, 한출 양상을 澑澑汗出이라 하여 『東醫寶鑑』과 본 조문의 원출처인 『傷寒論』에서와 달리 표현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東醫壽世保元』의 십조탕과 관련된 한출 양상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II. 研究方法

皦과 澑를 중심으로 『傷寒論』, 『東醫寶鑑』에 나타난 한출 양상과 이제마가 표현한 한출 양상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십조탕에 대해 『傷寒論』, 『東醫寶鑑』에서의 관점을 살펴보고, 이제마는 십조탕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십조탕의 인용 목적과 한출 양상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제마가 십조탕과 관련된 한출 양상을 인용 문헌 및 원출처와 달리 표현한 것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 1) 『傷寒論』은 한의문화사에서 2011년 출판한 『傷寒論精解』⁷⁾를 저본으로 하였다.
- 2) 『東醫寶鑑』은 동의보감 출판사에서 2016년 출판한 『對譯 東醫寶鑑』⁸⁾을 저본으로 하였다.
- 3) 『東醫壽世保元』은 여강 출판사에서 2003년 출판한 『原文對譯 東醫壽世保元』⁹⁾을 저본으로 하였다.

III. 本論

1. 皦과 澑를 중심으로 한출 양상의 비교

1) 상한론, 동의보감에 나타난 한출 양상

역대 의가들은 땀이 흐르는 양상을 표현하는 데 皦, 澑, 漑 등을 사용하여 단순히 ‘汗出’이라 표현하는 것에 비해 증상을 더욱 세밀하게 표현하고자 하였

1) 한출 모양에 관한 참고문헌 3은 李其忠, 程磐基. 《傷寒論》《金匱要略》中迭音詞探析. 上海中醫藥雜誌. 1988;5: 44-46. 이나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저자가 임의로 번역하여 참고문헌에 기재하였다.

2) 『傷寒論』 『太陽病』 “太陽中風 下利嘔逆 表解者 乃可攻之 其人皦皦汗出 發作有時 頭痛 心下痞硬滿 引脇下痛 乾嘔短氣 汗出不惡寒者 此表解裏未和也 十棗湯主之.”

다. 『東醫壽世保元』 십조탕의 澼澼汗出과 연관성이 높은 『傷寒論』, 『東醫寶鑑』에서는 熨과 澼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장중경이 한출 양상을 표현하기 위해 熨을 사용한 경우는 태양병편과 양명병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태양병편에서는 십조탕을 사용하는 경우로 병이 表에서 裏로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ㄷ땀³⁾을, 양명병편에서는 二陽并病과 관련하여 병이 太陽病에서 陽明病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손발의 ㄷ땀⁴⁾을 ‘熨熨汗出’로 표현하였다. 장중경이 澼을 사용한 경우는 모두 양명병편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상한에 양명으로 전속된 경우와 대승기탕을 사용하는 경우, 병이 풀리는 경우⁵⁾가 있다. 특히 병리적 한출에 해당하는 傷寒轉屬陽明⁶⁾과 대승기탕⁷⁾ 관련 문장에서는 주로 外, 表, 太陽病 보다는 內, 裏, 陽明病과 관련된 증상을 다루고 있다.

『東醫寶鑑』에서 熨과 관련된 표현은 ㄷ약⁸⁾ 또는 특정 발한법⁹⁾ 사용 후의 ㄷ땀을 나타낸 것으로 주로 생리적 한출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십조탕과 관련된 한출 양상을 표현한 熨은 소양증에 표증이 풀리고 리증이 남아있는 병리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ㄷ땀에 대한 표현이다.¹⁰⁾ 澼과 관련된 표현은 생리,

병리적 한출을 나타내는 데 모두 사용되었으며 생리적 한출은 발한법 사용 후 특정 부위의 ㄷ땀¹¹⁾, 발한량¹²⁾을 제시하는 것과 병이 풀리면서 나타나는 ㄷ땀¹³⁾을 표현하는 것에서, 병리적 한출은 자한¹⁴⁾, 외감과 내상이 겸한 경우¹⁵⁾, 양명병¹⁶⁾에서의 ㄷ땀을 표현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출 양상에 대한 『傷寒論』, 『東醫寶鑑』의 용례 검토를 바탕으로 『傷寒論』에서 熨은 병이 表에서 裏, 太陽病에서 陽明病으로 진행될 때 나타나는 ㄷ땀에 대한 표현이며, 澼은 外, 表, 太陽病 보다는 內, 裏, 陽明病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ㄷ땀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東醫寶鑑』에서 熨은 십조탕 문장을 제외하고 모두 발한법 사용 후 나타나는 ㄷ땀에 대한 것으로 생리적 ㄷ땀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고, 澼은 생리, 병리적 ㄷ땀을 표현하는 데 모두 사용되었다.

이처럼 熨과 澼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찾기 어려운 데, 이와 관련된 현재의 연구를 살펴보면 Li 등³⁾은 지속적으로 ㄷ땀이 나오는 모양을 표현한 것으로 熨熨은 적은 양, 澼澼은 비교적 많은 양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Qu 등¹⁰⁾은 澼을 ㄷ땀이 빠른 속도로 끊어지지 않고

3) 각주 2) 참고

4) 『傷寒論』「陽明病」“二陽并病 太陽證罷 但發潮熱 手足熨熨汗出 大便難而譫語者 下之則愈 宜大承氣湯.”
 5) 『傷寒論』「陽明病」“...澼然汗出而解者 此水不勝穀氣 與汗共并 脈緊則愈.”
 『傷寒論』「陽明病」“陽明病 下血譫語者 此爲熱入血室...澼然汗出則愈.”
 『傷寒論』「陽明病」“陽明病 脇下硬滿 不大便而嘔 舌上白胎者...身澼然汗出而解.”
 6) 『傷寒論』「陽明病」“傷寒傳繫陽明者 其人澼然微汗出也.”
 『傷寒論』「陽明病」“本太陽 初得病時 發其汗 汗先出不徹 因轉屬陽明也...澼澼然者 是轉屬陽明也.”
 7) 『傷寒論』「陽明病」“陽明病 脈遲 雖汗出 不惡寒者 其身必重 短氣 腹滿而喘 有潮熱者 此外欲解 可攻裏也 手足澼然汗出者 此大便已硬也 大承氣湯主之...”
 8) 『東醫寶鑑 雜病』「寒(上) 太陽形證用藥」“...以助藥力 令遍身熨熨微汗爲佳 得汗勿再服.”
 9) 『東醫寶鑑 雜病』「汗 蒸劫發汗」“蒸法...焮周身至脚心 自汗熨熨...”
 『東醫寶鑑 雜病』「寒(下) 可汗不可汗證」“凡發汗 欲令手足皆周至熨熨然一時間許益佳 不可令如水淋漓耳...”

10) 『東醫寶鑑 雜病』「寒(上) 少陽形證用藥」“少陽證 熨熨汗出 頭痛 心下痞硬滿 引脇下痛 乾嘔短氣 不惡寒 此表解裏未和也 宜十棗湯 若合下不下 則令人脹滿 遍身浮腫也.”
 11) 『東醫寶鑑 雜病』「汗 汗無太早」“...服藥 緩緩得汗 令手足澼澼爲佳.”
 12) 『東醫寶鑑 雜病』「汗 發汗法」“凡發汗 欲令手足俱周澼澼然 一時許爲佳 不欲如水淋漓...”
 13) 『東醫寶鑑 雜病』「寒(上) 傷寒陰證」“治傷寒陰證...令微汗澼澼然 自然解散...”
 『東醫寶鑑 雜病』「寒(下) 傷寒欲解」“傷寒三日...脈浮而解者 澼然汗出也...”
 14) 『東醫寶鑑 內景』「津液」“自汗者 無時而澼澼然出...”
 15) 『東醫寶鑑 雜病』「寒(下) 外感挾內傷證」“傷寒一證...澼然汗出 沈困身痛 脚痠...”
 16) 『東醫寶鑑 雜病』「寒(上) 陽明形證用藥」“傷寒轉屬陽明者 其人澼然微汗出也.”
 『東醫寶鑑 雜病』「寒(下) 可下不可下證」“不惡寒反惡熱 手掌心并腋下 澼澼汗出...裏證 內熱是也 內熱屬陽明 宜下.”
 『東醫寶鑑 雜病』「寒(上) 陽明形證用藥」“手足澼然汗出者...承氣湯下之...”
 『東醫寶鑑 雜病』「寒(上) 傷寒裏證」“...手足澼然汗出 急下之 宜大承氣湯...”

나오는 것이라 하여 熨과 澱을 다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았다.¹⁷⁾ 유¹¹⁾는 『傷寒論』에서 熨熨과 澱澱은 각각 부사어와 술어로 계속해서 땀을 흘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Sim¹²⁾은 熨과 澱은 그 원류가 같으며 集聲, 執聲, 聿聲은 모두 취합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¹⁸⁾ 또한 Yuan 등²⁾은 熨熨과 澱澱은 ‘滄滄’에서 분화된 것으로 중국의 고대 의서에서는 ‘滄滄’을 ‘澱澱’, ‘蟄蟄’, ‘熨熨’, ‘溼溼’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熨과 澱을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熨과 澱을 구분하는 하나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熨과 澱이 처음 등장하는 『傷寒論』이 의학적 지식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이론서가 아닌 임상서라는 점에서 언어학적 접근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제마의 한출 양상 표현

이제마는 『東醫壽世保元』에서 땀에 대해 상당한 빈도로 언급하고 있다. 한출 부위에 따라 소음인의 人中汗¹⁹⁾, 소양인의 手足掌心汗²⁰⁾, 태음인의 髮際에서 胸部까지의 汗²¹⁾, 태양인의 外腎汗²²⁾을 언급하고, 건강의 상태에 따라 病愈之汗²³⁾, 快汗과 非快汗²⁴⁾, 亡陽之汗²⁵⁾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제마

는 생리, 병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虛汗²⁶⁾, 潮汗²⁷⁾ 등으로 땀을 표현하였다.

십조탕과 관련한 澱澱汗出에 초점을 맞추어 이 제마가 한출 양상을 표현하기 위해 ‘澱’을 사용한 경우를 살펴보면, 澱澱汗出, 澱然微汗出, 澱然汗出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東醫寶鑑』과 원출처에서 한출 양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澱澱汗出은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에서 장중경의 말을 인용하여 “소양증에 축축하게 땀이 나고, 멍치 아래가 더부룩하고 땀땀하며 그득하고, 늑골 아래까지 땅기면서 아프고, 헛구역과 숨을 짧게 쉬며 오한이 나지 않는 것에 십조탕을 사용한다.”²⁸⁾라고 하여 땀이 나는 것을 澱澱汗出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東醫壽世保元』 인용문의 근간인 『東醫寶鑑』²⁹⁾과 본 조문의 원출처인 『傷寒論』³⁰⁾에서는 熨熨汗出로 기술되어 있다.

澱然微汗出은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에서 상한에 양명으로 전속되었을 경우 나타나는 땀에 대한 표현으로³¹⁾ 『東醫寶鑑』³²⁾, 『傷寒論』³³⁾에서도 澱然微汗出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이제마는 위가실에 대해 “처음에는 땀이 나지 않으며 오한도 나지

17) 참고문헌 10은 曲如意, 孫文鐘. <針灸甲乙經>中的 “溼溼” 与 “澱澱”. 中華中醫學藥學刊. 2010;28(10):2067-2068. 이나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저자가 임의로 번역하여 참고문헌에 기재하였다.

18) 참고문헌 12는 沈澍農. <中醫古籍用字研究>. 學苑出版社. 2007. 이나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저자가 임의로 번역하여 참고문헌에 기재하였다.

19)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少陰人病 一日發汗 陽氣上升 人中先汗 則病必愈也...”

20)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少陽人病 一日滑利 陰氣下降 手足掌心先汗 則病必愈也...”

21)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論」 “...髮際之汗始免危也 額上之汗僅免危也 眉稜之汗快免危也 額上之汗生路寬闊也 唇頤之汗病已解也 胸臆之汗病大解也...”

22)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太陽人之急病 欲占其吉凶則 當觀於外腎之汗不汗也.”

23)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少陰人病愈之汗 人中先汗...”

24)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論」 “太陰人汗 無論額上眉稜上額上 汗出如黍粒 發熱稍久而

還入者 正強邪弱 快汗也 汗出如微粒 或淋漓無粒 乍時而還入者 正弱邪強 非快汗也.”

25)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少陰人... 亡陽之汗 人中或汗或不汗...”

26) 『東醫壽世保元』 「四象人 辨證論」 “...太陰人虛汗 則完實也 少陰人虛汗 則大病也...”

27)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潮汗閉澱 滿渴狂證 宜調胃承氣湯...”

28)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張仲景曰 少陽證 澱澱汗出 心下痞硬滿 引脇下痛 乾嘔短氣 不惡寒 表解裡未和也 宜十棗湯 若合下不下 令人脹滿 遍身浮腫.”

29) 각주 10) 참고

30) 각주 2) 참고

31)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傷寒轉屬陽明 其人澱然微汗出也.”

32)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治少陰人太陽病轉屬陽明 其人澱然微汗出...”

33) 『東醫寶鑑 雜病』 「寒(上) 陽明形證用藥」 “傷寒轉屬陽明者 其人澱然微汗出也.”

33) 『傷寒論』 「陽明病」 “傷寒傳繫陽明者 其人澱然微汗出也.”

않고, 다만 오열만 나다가 그 병이 위태하게 되면 축축하게 약간 땀이 나고 조열이 난다.”³⁴⁾라고 하여 본인의 논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가실의 위증인 경우 나타나는 땀을 澌然微汗出로 표현하였다.

澌然汗出은 성무기의 『明理論』을 인용하여 “양명의 병이 되는 것은 위가실인 것이니, 헛소리를 하고 손발에 축축하게 땀이 나는 것은 대변이 벌써 굳어진 것이다.”라고 하여 손발의 땀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으며,³⁵⁾ 『東醫寶鑑』³⁶⁾, 『明理論』³⁷⁾, 『傷寒論』³⁸⁾에서도 澌然汗出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마는 십조탕과 관련된 澌然汗出을 제외한 澌과 관련된 표현은 『東醫寶鑑』을 변형 없이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땀을 표현하기 위해 熱을 사용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2. 상한론, 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의 십조탕 비교

1) 상한론, 동의보감에서의 십조탕에 대한 관점

십조탕은 『傷寒論』의 태양병편에서 처음 나타나는 처방으로 원화, 감수, 대극, 대조로 이루어져 있다. 장중경은 표증이 풀린 후에 공하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汗出, 頭痛, 引脇下痛, 乾嘔短氣, 不惡寒 등의 증상이 있을 때 표증이 풀린 것으로 보고 십조탕을 사용하였다.³⁹⁾ 장중경의 십조탕에 대해 채¹³⁾는 “십조탕증은 內傷性 水結證으로 두통, 한출의 외감증풍의 유사증이 있는 것이지, 결코 태양증풍으로 인해 유발된 증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김 등⁷⁾은 “본 조는

태양증풍의 外感表證에 하리구역인 懸飲裏證을 겸한 것으로 先表後裏의 치료 원칙을 따르고 있다. 또한 熱熱汗出이 태양증풍의 표허증과 유사하나 발작하는 때가 있다고 하여 水邪가 營衛의 공능에 영향을 준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여 십조탕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으나 땀을 포함한 십조탕증에 대해 水結, 水邪와 관련된 것이라 밝히고 있다.

십조탕은 『東醫寶鑑 雜病』 『寒(上) 少陽形證用藥』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장중경이 언급한 것과 동일하지 않다. 『東醫寶鑑』에서는 “소양증으로 축축하게 땀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멍치가 막히고 단단하고 더부룩하며, 옆구리 아래가 당기고 아프며, 헛구역질을 하고 숨이 짧으며, 오한이 없는 것은 표증은 풀렸으나 리증은 풀리지 않은 것으로 십조탕을 써서 설사시키는 것이 합당하니 설사시키지 않으면 창만이 되고 온몸에 부종이 생긴다.”⁴⁰⁾라고 기술되어 있다. 십조탕 문장에 뒤이어 “리증이 풀리지 않는 것은 痰과 燥氣가 중증에 막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헛구역질하며, 숨이 짧고 땀이 나는 것이다. 이것은 痰이 막았기 때문이므로 십조탕이 아니면 치료하지 못한다.”⁴¹⁾라고 하여 십조탕을 痰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傷寒論』과 『東醫寶鑑』에서 십조탕에 대해 水結, 水邪, 痰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장중경은 십조탕을 태양병편에서 다루고, 『東醫寶鑑』에서는 소양병으로 분류되며 태양증풍에 대한 언급은 사라지고 소양증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 등⁴⁾은 “십조탕 조문의 주치증이 협동이므로 소양병의 처방으로 분류한 것이며 이는 水氣로 인해 형성된 협동을 의미한다.”라고 하여 『傷寒論』과 『東醫寶鑑』에서 십조탕의 차이에 대해 밝히고 있다.

34)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胃家實病 其始爲汗不出 不惡寒 但惡熱 而其病垂危 則澌然微汗出 潮熱也...”

35)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成無己明理論曰...陽明之爲病 胃家實也...則譫語 手足澌然汗出者 此大便已鞭也 譫語有潮熱 承氣湯下之...”

36) 『東醫寶鑑 雜病』 『寒(上) 陽明形證用藥』 “手足澌然汗出者 此大便已鞭也 譫語有潮熱 承氣湯下之...”

37) 『明理論』 『手足汗 第九』 “...手足澌然汗出者 此大便必硬也...下之則愈...”

38) 『傷寒論』 『陽明病』 “...手足澌然汗出者 此大便已硬也 大承氣湯主之...”

39) 각주 2) 참고

40) 각주 10) 참고

41) 『東醫寶鑑 雜病』 『寒(上) 少陽形證用藥』 “杜壬曰 裏未和者 蓋痰與燥氣壅於中焦 故頭痛 乾嘔 短氣 汗出是痰隔也 非十棗湯不治.”

2) 이제마의 십조탕에 대한 관점

이제마는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에서 소양인 결흉을 설명하기 위해 십조탕 문장을 인용하였으며, 이는 『傷寒論』보다 『東醫寶鑑』과 유사하나 이제마는 ‘漑漑汗出’을 ‘漑漑汗出’로 기술하고, ‘頭痛’은 인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인용 문헌과 달리 기술한 바탕이 되는 이제마의 십조탕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이하 『甲午本』)⁴²과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이하 『辛丑本』)⁴³을 소양인 결흉과 감수의 사용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다.

소양인 표병에서 결흉의 위치를 살펴보면, 『甲午本』 『少陽人 膀胱大腸病篇尾泛論』에서 “表之表病 大目有五 一曰浮腫 二曰喘促 三曰結胸 四曰寒熱往來 胸脇滿 五曰發熱惡寒 身體痛”이라 하였고, 『辛丑本』 『少陽人 泛論』에서 “...浮腫 喘促 結胸 痢疾 寒熱往來胸脇滿 五證同出一屬而自有輕重.”이라 하여 결흉은 소양인 표병 중 가벼운 병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제마는 『甲午本』⁴²과 『辛丑本』⁴³에서 결흉을 소양인에서 熱邪로 인해 陰氣의 하강이 불리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表氣陰陽虛弱 正邪相爭 累日不決之中 裏氣亦秘澁不和 而變生此證也”라 하여 결흉에 대한 생각은 개초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변화하지 않았다.

초기 이제마는 십조탕과 관련하여 “오한하지 않는 것은 表가 풀린 것 뿐만 아니라 병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고, 땀이 나고 숨이 짧은 것은 裏가 풀리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병이 險의 단계에 있는 것이다.”⁴⁴라고 하여 ‘不惡寒’, ‘汗出’, ‘短氣’에 주목하였다. 감수에 대해서는 소음인에서의 파두와 마찬가지로 독이

있어 사용시 주의해야 하며, 복용 후 발생한 설사는 시호과루탕과 미음으로 조리해야 한다고 하였다.⁴⁵ 또한 감수의 사용은 表裏의 氣 상태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하였는데, 表裏의 氣가 굳세어 병세가 급한 ‘水逆還吐而結胸’에는 감수를 급히 사용해야 하고⁴⁶, 表裏의 氣가 독약을 버틸 수 없는⁴⁷ ‘汗出短氣’, ‘燥渴譫語’에는 감수를 사용하지 않고 시호과루탕, 시호과루탕과 백호탕을 사용하여 水結을 서서히 풀어야 한다고 하였다.⁴⁸

이후 이제마는 『辛丑本』에서 십조탕 관련 증상 중 ‘乾嘔’, ‘短氣’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임상 경험의 축적에 따라 감수의 사용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제마는 결흉에 복약시 모두 토하였는데, 감수 복용 후에는 토하지 않았으며 설사를 하고 난 뒤 병이 나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⁴⁹ 이에 “무릇 결흉은 험증이 아닌 것이 없다. 마땅히 먼저 감수를 사용하고, 형방도적산으로 눌러야 한다.”⁵⁰라고 하였으며 결흉에는 감수 3分, 대결흉에는 감수 5分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헛구역과 숨이 짧으며 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감수를 사용하지 않고 형방도적산에 복령과 택사를 가미하여 사용하였다.⁵¹

42)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外感膀胱病論』 “...少陽人 膀胱下陷之陰氣 爲熱邪所壅 未達下陷 凝聚膈間 膠固因滯之證也...”

43)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少陽人 腎局陰氣 爲熱邪所陷 而脾局陰氣 爲熱邪所壅 不能下降 連接於腎局 而凝聚膈間 膠固因滯之病也...”

44)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外感膀胱病論』 “...不惡寒者 非表解也 病益甚也 汗出短氣者 非但裏未和也 病在險也...”

45)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外感膀胱病論』 “少陽人 甘遂藥 與少陰人 巴豆藥 比較 則其毒猶輕 然不可輕用 用時 豫煎 柴胡 芫花 湯 二貼 豫備 米 飲 二椀...”

46)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外感膀胱病論』 “...水逆還吐而結胸者 表裏氣猶壯 而氣勢最急 不可不急用 甘遂 直攻 痰水 燥氣 壅結之處所也...”

47)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外感膀胱病論』 “...短氣與譫語者 必不可用 用之則危 蓋少陽人 甘遂藥 與少陰人 巴豆藥 可以用之於表裏氣可支之時也 不可用之於表裏氣不可支之時.”

48)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外感膀胱病論』 “汗出短氣而結胸者 當用柴胡 芫花 湯...徐徐以解水結 而不可輒用 甘遂 直攻 水結 燥渴譫語而結胸者 當用柴胡 芫花 湯 合 白 虎 湯...徐徐以解水結 而不可輒用 甘遂 直攻 水結.”

49)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凡結胸病 皆藥湯入口 輒還吐 惟甘遂末 入口 口涎含下 因以溫水 嗽口而下 則藥不還吐...又用甘遂 一次快通利而病愈...”

50)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凡結胸 無非險證 當先用甘遂 仍煎煎防導赤散以壓之...”

51)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乾嘔短氣而藥不還吐者 不用甘遂 但用荊防導赤散 加茯苓 澤瀉 各一錢...”

이는 초기 이제마의 감수의 유독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십조탕 관련 증상 중에서 ‘乾嘔’, ‘短氣’에 주목하여 초기의 생각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제마는 십조탕에 대해 소양인에서 裏熱로 인해 발생하는 결흉과 연관지어 이해하였다. 또한 이제마는 『傷寒論』, 『東醫寶鑑』에서의 십조탕에 대한 관점과 유사하게 ‘水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십조탕 관련 증상에 대해 소양인의 체질 병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십조탕의 인용 목적과 한출 양상

땀을 중심으로 십조탕에 대해 살펴보면, 초기에 이제마는 ‘汗出’, ‘短氣’를 언급하며 땀을 소양인 결흉의 중요한 증상으로 파악하였으나 『후丑本』에서는 ‘汗出’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므로 이제마의 십조탕과 관련한 땀에 대한 견해는 『甲午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기에 이제마는 십조탕 문장에 나타난 ‘汗出’, ‘短氣’를 소양인 결흉의 증상으로 보았으며, 裏熱의 심화로 表裏의 氣가 지탱할 수 없는 상태, 즉 險證으로 파악하였다. 장¹⁵⁾은 “태양소양병속이 表氣의 손상이 가벼워 아직 裏熱이나 痰飲이 미약한 상태라면, 결흉병속은 表氣 손상이 진행됨에 따라 裏氣마저 秘澁해지면서 가중된 痰飲이 裏面에서 자라난 燥熱과 상합하여 水道를 폐색하는 단계이므로 결흉병속이 태양소양병속 보다 重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여 결흉을 소양상풍증에 비해 裏熱과 痰飲이 심화된 상태라 하였다. 따라서 이제마는 십조탕 문장의 인용 목적인 ‘裏熱의 심화’에 초점을 맞추어 ‘頭痛’은 인용하지 않고, 한출 양상을 인용 문헌과 달리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마가 한출 양상을 熨이 아닌 澁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은 『傷寒論』과 『東醫寶鑑』의 熨과 澁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傷寒論』과 『東醫寶鑑』에서 熨은 병이 表에서 裏, 太陽病에서 陽明病으로 진행될 때와 발한을 시킨 후 나

타나는 생리적 한출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고, 澁은 內, 裏, 陽明病과 관련된 땀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십조탕과 관련한 땀은 裏熱의 심화로 발생하는 증상이므로 한출 양상을 표현하는 데 澁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마의 인용에 대해 박 등¹⁶⁾은 “이제마가 『東醫壽世保元』 저술시 대부분 『東醫寶鑑』을 인용하였으나 『東醫寶鑑』 이외의 다른 서적들은 보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이제마가 『傷寒論』을 포함하여 『東醫寶鑑』에 나타나는 다양한 의서를 참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한출 양상에 대한 『傷寒論』, 『東醫寶鑑』의 용례와 관련 연구에서 보여지듯이 熨과 澁의 해석과 사용에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십조탕과 한출 양상에 대한 이제마의 견해는 명확히 단정 짓기보다는 기존의 시각과 이제마의 시각을 바탕으로 하나의 가능성에 대해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IV. 結論

한출 양상에 대해 熨과 澁을 중심으로 『傷寒論』과 『東醫寶鑑』을 살펴보고, 이제마가 표현한 한출 양상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십조탕에 대해 『傷寒論』, 『東醫寶鑑』의 관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십조탕에 대한 이제마의 관점을 소양인 결흉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이제마가 한출 양상을 인용 문헌 및 원 출처와 달리 표현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이제마는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脾受寒 表寒病論』에서 소양인 결흉을 설명하기 위해 십조탕을 인용하였는데, 인용 과정에서 熨汗出을 澁汗出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2. 한출 양상에 대해 『傷寒論』과 『東醫寶鑑』에 나타난 熨은 병이 表에서 裏, 太陽病에서 陽明病으

로 진행될 때 나타나는 땀과 발한 후 나타나는 생리적 땀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고, 漑은 內, 裏, 陽明病과 관련된 땀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3. 이제마가 십조탕 증상 중 ‘汗出’, ‘短氣’에 대해 ‘水結’이라 표현한 것은 『傷寒論』, 『東醫寶鑑』에서의 십조탕에 대한 관점과 유사하나, 소양인에서 裏熱의 심화로 인해 발생하는 결흉과 연관지어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제마는 십조탕과 관련된 땀을 소양인에서 裏熱이 심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傷寒論』, 『東醫寶鑑』의 漑과 漑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內, 裏, 陽明病과 관련성이 높은 漑을 사용하여 한출 양상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초기 이제마는 십조탕 증상에서 ‘汗出’, ‘短氣’를 언급하였으나 『辛丑本』에서는 ‘乾嘔’, ‘短氣’를 언급하며 땀에 대해 다루지 않으므로 이제마의 십조탕 관련 땀에 대한 시각은 『甲午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汗出’, ‘短氣’에 대해서는 表裏의 氣가 감수의 독을 버릴 수 없는 상태라 하였고, ‘乾嘔’, ‘短氣’에 대해서는 토하지 않을 경우 감수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초기에는 땀을 소양인 결흉의 주요 증상으로 파악하였으나 임상 경험의 축적에 따라 감수의 사용에 대한 관점 변화와 함께 소양인 결흉에서 땀의 중요도는 낮아졌다.

VI. References

1. Lyu JA, Jang WC, Baik YS, Jeong CH.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escriptions of the Perspiration in Hwangjenaegyong(黃帝內經). J. Oriental Medical Classics. 2010;23(2):205-223. (Korean)
2. Yuan KH, Chen HJ, Sun WZ. Interpretations of three words in Chinese ancient medical books. Journal of Beijing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3;36(6):380-382
3. Li QZ, Cheng PJ. A study on JilEumSa(送音詞) in ShangHanLun, Geumgweoryak. Shanghai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88;5:44-46
4. Lee JH, Lee YB. A study on Soyang diseases of Donguibogam.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6;19(1):194-201. (Korean)
5. Yoon JJ, Lee YJ, Kim HY, You MA, Xian JJ, Hong MH et al. Improvement Effect of Sibjotang on Blood Glucose and Renal Dysfunction in Type II Diabetic Mice. The Korea Journal of Herbology. 2017;32(1): 15-23. (Korean)
6. Kwon OJ, Oh HC, Lee YJ, Kim HY, Tan R, Kang DG et al. Sibjotang Increases Atrial Natriuretic Peptide Secretion in Beating Rabbit Atria. Evidence 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5:1-11.
7. Kim DH, Kim SH, Kim YM, Kim JB, Moon JJ, Park WS et al. ShanghanlunJungHae. Kyungido: HanUi publishing Company. 2011.
8. Hur J. Donguibogam. Hadong: Donguibogam publishing company. 2016.
9. Lee JM(translation by Donguihyeonguso). Donguisebowon. Seoul: Yeoungang. 2003.
10. Qu RY, Sun WZ. “luòluò(裸裸)” and “jīn(漑漑)” in Chimgugapgyeong(鍼灸甲乙經). Chinese Archive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0;28(10):2067-2068
11. Yoo YG. A Research on Duplicate Words in Shang HanLun. Journal of Chinese Humanities. 2012;51: 91-107. (Korean)
12. Sim JN. A study on Using letter of Chinese medicine's old book. Beijing: hakwonchulpansa. 2007.
13. Chae IS. Shanghanlun Translation. Seoul: Kommonsa. 2000.
14. Lee JM(translation by Kim DL). Dongyusebowon Gabogubon. Seoul: Mokgwato. 2002.

15. Jang WC. Interpretation of chest bind(結胸) in Donguisusebowon based on the chest bind disease of the Soyang pattern.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5;28(4):99-119. (Korean)
16. Park SS, Song IB. A study on Medical source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Lee Jema's Medical idea(focusing on the quotation of Dongeuisusebowon). The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1993;5(1):7-39. (Korean)